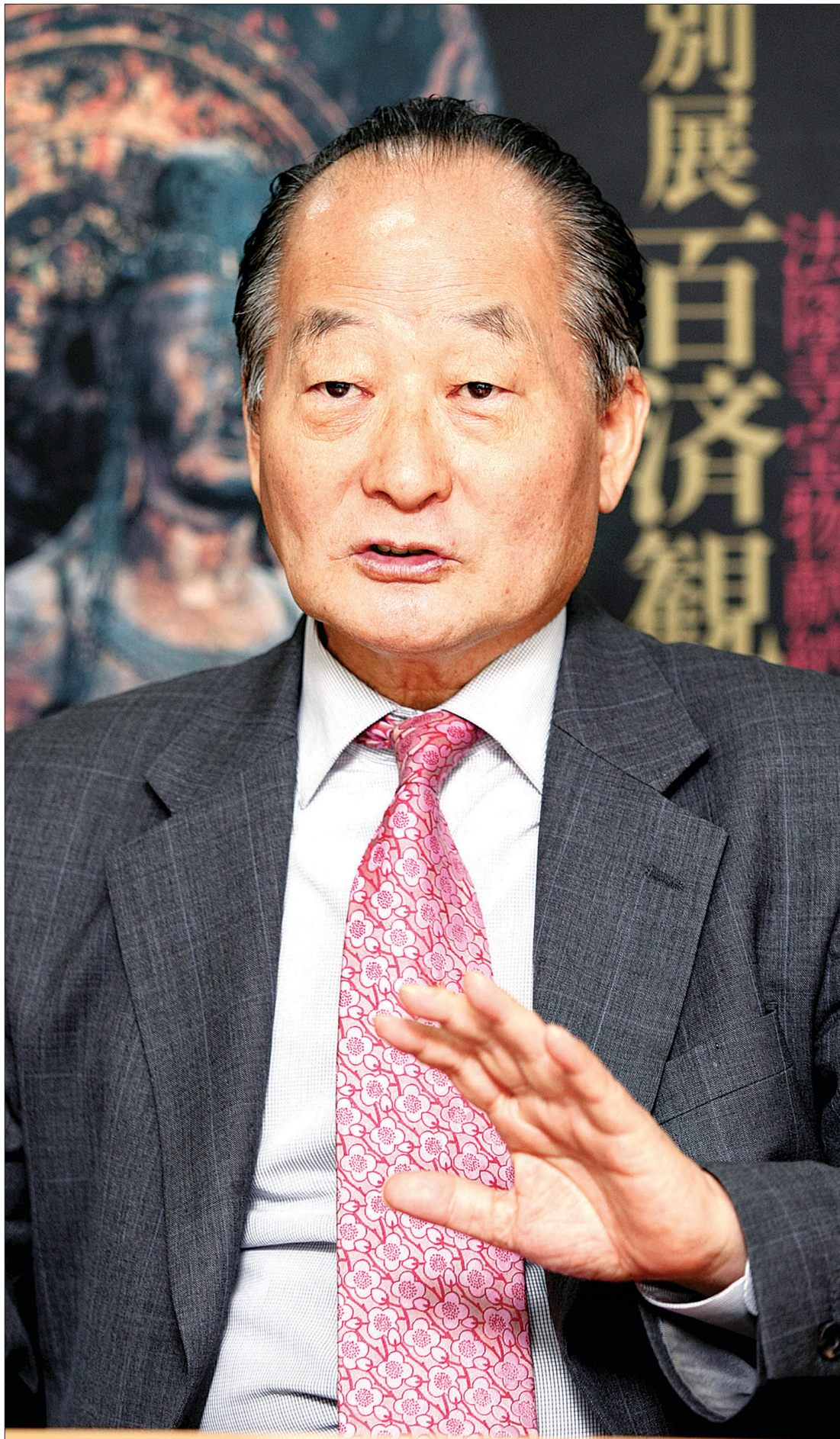


# 불교 미술에서 깨달은 '영기화생론' ...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원장



강우방 원장은 ... 1941년 출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이화여대 대학원 초빙교수로도 재직했다. 현재 일향한국미술연구원에서 한국미술사 전반을 정리하고 있는 미술사학자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불교의 사리장엄> <한국미술의 탄생> <한국불교 조각의 흐름> <수월관음의 탄생>과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예술은 수단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화 한 점이 경전을 대신할 수 있고 불교의 진리를 대변할 수 있고,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조형예술로 보여줌으로써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책 이전에 미술 작품에서 제 학문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을 통해 한국미술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강우방 원장(73)은 불교미술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강우방 원장을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강 원장이 정립한 영기화생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40년 넘게 한국미술사 연구에 매진해 온 강 원장의 연구방향과 불교미술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 영기화생론을 말한다

강 원장은 지난해 1년 동안 본지에서 영기화생론을 바탕으로 '강우방 원장의 한국 미술의 틀린용어 바로잡기' 연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영기화생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교미술 용어들이 잘못되었음을 이론적으로 밝히며 앞으로 이에 대한 용어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그가 정립한 영기화생론은 무엇일까?

"영기화생론(靈氣化生論)은 제 개인의 이론이 아니라 세계 보편적 이론입니다. 불교는 종교와 철학을 겸비한 체계화된 종교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종교 철학의 세계와 이를 조형언어로 표현한 조형예술은 영(靈)의 세계입니다. 일상적인 세속적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고 언어도 함유하는 바가 달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조형언어의 이면을 연구하는 것이 영기화생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가득 찬 '영적(靈的) 기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옛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영적 존재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기운'을 보거나 느껴서 여러 가지 조형으로 표현해 왔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리 문화유산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강 원장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10%만 보고 연구하고 논쟁하는 셈이 되므로 학문적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靈的) 기운'을 바탕으로 용(龍), 봉황, 식물영물모양 등 동물모양이나 식물모양을 구상적 혹은 추상적으로 표현한, 조형 일체를 '영기문(靈氣文)'이라 부릅니다. 바로 이들 영기(문)에서 만물이 화생, 즉 신비한 탄생을 합니다. 이것을 '영기화생(靈氣化生)'이라 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일상적 시각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강 원장은 영기화생의 표현원리를 찾아내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고 말한다. "조형예술은 종교의 수단이 아니라 나름의 조형언어로 절대적 진리의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조형예술에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2000년에 귀면(鬼面)을 용면(龍面)으로 인식한 것은 큰 깨달음이었습니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학문의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강 원장은 이후 한국의 건축, 회화, 금속공예, 도자

공예, 복식 등을 새로운 방향에서 연구해나갔다. 동시에 이전에 기록해 놓은 조형 언어들이 수많은 오류가 있음을 절감하고 본지와 불교신문에 100회에 걸친 연재를 감행한 바 있다. "저는 이런 작업들이 불교 문화를 올바르게 잡아가는 일이며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문화는 불교문화에 진배없으므로 한국문화를 바로 잡아가는 여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의 연구 과정은 다양한 저서로 탄생되었다. <한국미술의 탄생>(술 출판사, 2007년)이었고 각각적으로 출판된 저서가 <수월관음의 탄생>(글항아리, 2013년)이며 <오덕사 괘불>(통도사, 2013년) 등이 차례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 불교미술의 보고 경주로 향하다

강우방 교수는 서울대에서 독문학과 고고인류학을 공부하며 미술사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68

### 불교는 철학 겸비한 체계화된 종교

현대인들은 문화재의 10%만 읽어내 '영기화생론' 이론 정립으로 이면 찾아 유럽·일본 등 세계 문화재로 연구 확대

### 1970년부터 경주박물관서 근무하며

분황사 황룡사 등 유적지 발굴 참여 출퇴근 시간 답사하며 사진 기록 남겨 2002년 '영겁 그리고 찰나' 사진전도

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입사하게 된다. 이후 우리 문화의 모태가 신라임을 절감하고 1970년부터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제가 아마도 지방박물관 최초의 학예연구사일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받던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경주는 그 자체가 불교미술의 보고였기에 문화재 연구에 몰두해 있던 저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죠. 당시는 발굴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황룡사, 감은사, 분황사, 안압지 등 주요 유적지들에 대한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경주박물관 근무 시절 그는 '한국미술 오천년'이라는 주제로 3년 동안 일본과 미국 등을 돌며 대규모의 순회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때 미국 전시에 대비해 미리 써놓았던 논문은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주제는 '삼국시대 신라 미술 통일신라의 미술 과도기 양식'이었다. 강 원장은 이를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하버드대 미술사학과 의 초청을 받아 박사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

"사실 학위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미술사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3년 유학을 했는데 주로 인도 중국 미술 등의 작품을 많이 공부했어요. 한국미술은 그곳에 공부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는 않았어요.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보니 수준이 많이 낮았는데, 풀이해보면 한국미술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격이니 당연한 일이지요. 하버드 시절에는 주로 미술사 전반에 대한 기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의 공부가 미술사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강 원장은 12년 경주 생활을 정리하고 1982년 서울로 돌아와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과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한다. 이후 1997년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다시 경주를 찾게 되니 경주는 그에게 제 2의 고향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경주에 있는 동안은 불교미술 관련 논문을 많이 썼어요. 문화재 사진도 많이 찍었죠. 문화재 연구와 사진찍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출퇴근 시간 경주 주변을 답사하며 틈틈이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퇴임 이후에 전시회를 열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분량이 되었습니다."

2002년 '영겁 그리고 찰나'라는 제목으로 사진전 시회를 가졌다. 경주에 산재한 고분, 석굴암 불상, 탑 등 30여년 동안 찍어온 수만컷의 사진 중 80여점을 엄선한 전시였다. 흑백사진은 1970~1982년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직 시절에 찍은 것이고, 컬러사진은 1997~2000년 경주박물관장 시절에 찍은 것들이었다. 문화재 사진 촬영은 미술사학자에게는 필수라고 말하는 강 교수는 "영겁과 찰나가 불이(不二)의 혼연 일체가 되는 것이 사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강 교수는 이제는 경주의 문화재들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 "그간 일반인들 사이에서 답사 붐이 크게 일어났어요.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남산이 유명해지자 너도 나도 남산을 찾으니 남산이 다 할어버렸죠. 저는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는 답사는 반대합니다. 정말 관심 있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유적지 구석구석을 찾아야 그 가치를 알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사는 놀러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은 답사나 교육은 문화재를 엉망으로 훼손하죠. 그래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들의 답사는 자제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이 문화재 보호에 인식이 부족한 것도 큰 걱정이라며 스님들도 불교미술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가 보물로 지정된 한 사찰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찰 단청을 엉망으로 칠해 놓은 거예요. 알고보니 초보한테 작업을 맡겨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거죠. 스님들이 문화재 전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님들도 문화재에 대한 소양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각 사찰이 문화재 목록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도 있죠. 더불어

##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동판차상 (가로64×세로40×높이18cm)

###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플림 동판차상

100% 국내제작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차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입금계좌: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수플림수집대(주) www.supulim.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